



강진 김영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 더 화려해지고 풍성해진다

가을 초화 다양화하고 세대별·방문객별 맞춤형 행사장 연출



지난해 10만명이 가까운 관람객을 모은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이하 ‘노란꽃잔치’)가 더욱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해 손님맞이에 나선다. 장성군은 올해 열리는 ‘노란꽃잔치’의 윤곽에 대해 가을 초화를 더욱 다양화하고, 세대별·방문객별 맞춤형 행사장을 연출하며, 입장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둘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3~29일 황룡강변 일원에서 열린 ‘노란꽃잔치’는 황룡강변에 10여 송이 꽃을 식재해 전국에서 가장 긴 ‘꽃길’을 조성한 점, 누런 용이 마을 사람들을 수호했다는 황룡강의 전설을 스토리텔링화해 호기심을 자극한 점,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을 지루하지 않게 만든 점 등이 화제에 올라 장성군 축제 사상 가장 많은 관람객인 98만7,340명을 모으며 전국 축제로 발돋움했다.

이와 관련해 장성군은 지난해 축제의 장점은 계승 및 발전시키고 미비한 점은 보완해 올해 ‘노란꽃잔치’를 대한민국 꽃축제의 롤모델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장성군은 지난해 축제 때 관람객들을 감탄시킨 백일홍과 황화코스모스 외에도 핑크블리, 아스타, 송영국 등 다양한 가을 초화를 식재해 관람객들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서양 역사나 분홍 여사로 불리는 핑크블리는 특유의 몽환적이고 아국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컬러풀한 자태 덕분에 사진발이 잘 받기로 유명한 핑크블리를 식재한 곳은 사진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장성군은 백일홍, 황화코스모스와 함께 핑크블리가 황룡강을 찾는 관광객에게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은 행사장 연출에도 변화를 꾀했다. 지난해엔 황룡강변에 주제별로 6개의 테마정원을 조성한 데 반해 올해의 경우 4개 테마인 ‘햇빛정원’ ‘꽃빛정원’ ‘달빛정원’ ‘별빛정원’으로 행사장 연출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황룡강의 자연적 요소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축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바라기 정원인 ‘햇빛정원’의

테마는 해를 따라 움직이는 노란 해바라기와 즐기는 정원, 메인 정원으로 공연존, 전시존, 체험존, 푸드존, 주막존을 아우르는 ‘햇빛정원’의 테마는 장성의 이야기, 빛, 자연을 더해 꽃으로 수놓은 정원이다. ‘달빛정원’의 테마는 황룡강 달빛을 향해 소원을 빌면 이뤄지는 정원이고, ‘별빛정원’의 테마는 은하수 별빛을 찾아 사색하는 정원이다. 장성군은 행사장 연출에 변화를 가미해 세대별·방문객별로 맞춤형 행사장을 조성함으로써 보다 많은 관람객을 모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노란꽃잔치’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데 있다. 실제로 동시대 산학협력단이 지난해 장성군 의뢰로 ‘노란꽃잔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조사한 결과, 총 265여 여원의 직접경제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파급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같은 경제효과를 거둔 건 장성군이 처음으로 쿠폰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쿠폰제의 경우 쿠폰을 구입하는 게 불편하고 이용법이 생소하다는 반응이 일부 있었다. 이에 따라 장성군은 올해부터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 입장료 제도에는 ‘비밀’이 있다. 장성군은 관람객이 입장료를 내면 입장료 액수에 해당하는 바우처 상품권을 제공하여 행사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구례군,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구례군은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사업장 200여 개소에 신고·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발송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총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업소 관할 시·군·구에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총면적 1㎡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유틸리티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

부 또는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고서를 직접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또는 10%의 과소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영광군, 지역사회중심재활 서비스 제공 호응 좋아



영광군은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통합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발생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비스 주요 내용은 연중 재활실

운영, 거동불능 장애인 방문재활 장애인 및 가족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자조모임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 발생 예방 교육·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재활실을 2년째 이용하는 주민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함을 걱정하고 있을 때 SNS를 통해 알게 된 보건소 재활실에 방문하여 재활병원에 갖추어져 있는 운동기구와 똑같은 시설이 보건소에 있어 현재까지 재

활 서비스를 받고 있어 매우 만족하며 가정에서 지내는 장애인들의 적극적으로 보건소 재활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의 장애 원인은 88.9%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 발생 예방사업 등록 대상자 발굴, 기관과의 연계, 건강증진 및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보성군, ‘2019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벼 건조·저장시설 구축, 고품질쌀 생산기반 마련

보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9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 8천 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미국종합처리장(RFC)을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사업선정에 따라 내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 RFC인 보성군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대표 안중환)에 순환식 건조시설 30톤 3기와 저장시설인 싸일로 400톤 3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벼 건조·저장시설 구축으로 대규모 추곡 산물수매시 물량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원료

곡 변질을 예방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노후 시설 현대화 및 브랜드쌀 생산 등을 적극 지원해왔다”며, “이번 사업선정으로 보성군 대표 브랜드인 녹차미인 보성쌀 육성과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신안군, 한국 지속가능 섬 포럼 참석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등 생태관광 발전 방향 모색

신안군은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섬 마을 공동체 발전을 위해 9일 국회도서관에서 (주)섬연구소가 주최한 ‘제1회 한국 지속가능 섬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와 국회의원 및 섬 활동가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의 영토적 관리 개념과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섬 관광개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등 생태관광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본 포럼은 △전남도 가고 싶은 섬 사업의 성과 △섬 관광정책 사례 발표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컨트론타워 설립 방안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박우량 신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섬 발전을 위해서는 무한의 가치를 가진 섬들의 잠재까지 발굴 섬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의 개선 지속 가능한 추진체의 구성, 섬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 관리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

함평군이 마을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계획해 추진하는 ‘2018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분야는 ▲경제활성화, ▲공동체활성화, ▲생활환경개선, ▲기타분야 등 총 4개 분야로 마을 공동사업장,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 마을 리더 육성, 소풍 이카데미, 공동체 학습모임, 골목길 다듬기, 벽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은 함평군 거주 5인 이상의 마을주민 모임(단체) 또는 마을공동체로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 서류를 작성해 각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사전 서류심사와 함평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9개 읍·면별 각 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에는 5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함평=김광훈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라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요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면역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